

나주시, 청년 주거 해결... 임대주택 35호 추가 공급

25평 세대원 2명 이상 우선 배정 중위소득 150% 이하 무주택 조건 기본 2년 계약 1회 연장 최대 4년 28일까지 시청 또는 이메일 접수

전라남도 나주시가 보증금 없이 아파트 관리비만 내고 최대 4년간 거주할 수 있는 '취업 청년 임대주택' 35호를 추가로 공급한다.

8일 나주시에 따르면 오는 28일까지 취업청년 임대주택 입주 신청서를 접수한다.

취업 청년 임대주택은 나주에 일자리

를 얻고 전입하는 18~45세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선 8기 청년 패키지 정책 중 하나로, 지난 2023년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도입 첫해 송월동·삼영동 소재 부영아파트 30호, 2024년 70호를 공급했으며 올해 송월동 부영아파트 35호를 추가로 확보했다.

21평대 15호, 25평대 20호를 공급하고 25평의 경우 전입 세대 구성원이 2명 이상인 신청자에게 우선 배정할 예정이다.

입주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이면서 나주시가 아닌 타 지역에 주소를 두고 아파트 입주일 즉

시 전입이 가능한 전입 예정자다.

선정을 위해서는 나주시 관내 사업체 근로자 또는 사업자로써 근로소득 증빙이 가능하고, 건강보험료 납입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무주택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특히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등 세대 구성원이 많은 가구와 나주시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근로(예정)하는 청년에게는 우선 입주 자격을 부여한다.

아파트는 기본 2년 계약으로 1회 연장을 통해 최대 4년간 거주할 수 있다.

입주 신청은 이날 나주시 누리집 고시·공고에 게시되는 '취업 청년 임대주택 지원사업'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시청 기획

예산실에 직접 방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입주자 선정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중 입주자를 최종 발표한 후 입주를 진행할 예정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취업 청년 임대주택이 나주에서 새로운 직장, 삶의 터전을 마련한 타지역 청년들과 신혼부부들의 안락한 보금자리가 되길 기대한다"며 "안정된 일자리와 주거, 풍족한 문화생활 혜택을 통해 청년 인구를 유입하고 임신과 출산 지원, 안심 돌봄, 명품 교육까지 저출생 극복을 선도하는 살기 좋은 행복 나주를 구현해 가겠다"고 말했다.

나주=김용의 기자



환경의 날 기념 플로깅 환경 정화 한국수자원공사 영·섬유역관리처

한국수자원공사 영·섬유역관리처는 지난 7일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시민공원에서 '세계 환경의 날(6월5일)'을 기념해 플로깅 활동을 전개했다고 8일 밝혔다.

'플로깅'은 스웨덴어 'Plocka upp'과 영어 'Jogging'의 합성어로 조깅을 하며 주변에 떨어진 쓰레기를 줍는 행동을 뜻한다.

이날 30여명의 직원들은 상무시민공원 일대를 걸으며 산책로 주변 쓰레기 줍기 등 환경 정화 활동을 펼치는 한편 공원 내 시민들을 대상으로는 물의 중요성을 알리는 홍보활동도 병행해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알리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전사적 플로깅 행사를 지속 확대 예정으로, 영·섬유역본부 산하 현장 사무소에서도 5월 중 자체 플로깅 활동을 추가 시행할 예정이다.

이혜승 영·섬유역관리처장은 "한국수자원공사 영·섬유역본부는 이번 플로깅 활동을 비롯해 앞으로도 지역 내 환경오염 저감을 위한 보전 활동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조진용 기자

차선이탈 경보장치 설치 지원 목포시, 고령자 대상 50대 한정

전라남도 목포시는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차선이탈 경보장치'와 '페달 블랙박스' 구입·설치비를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올해 사업량은 50대로 생업 등으로 부득이하게 차량을 운행해야 하거나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워 운전면허 반납이 곤란한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지원 대상이다. 시는 1대당 최대 57만원까지 장비 구입 및 설치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차선이탈 경보장치는 차량이 주행 중 차선을 이탈하거나 차량 간 근접·추돌, 보행자 충돌 위험이 발생할 경우 경고음을 통해 사고를 예방하는 장치다.

올해부터 새로 지원하는 페달 블랙박스는 브레이크 페달에 설치돼 급발진 등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데 활용된다.

장비 지원을 희망하는 고령 운전자는 오는 30일까지 목포시청 교통행정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목포시 관계자는 "최근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지원사업이 고령 운전자의 안전 운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목포=정기찬 기자

'공동체상영' 단체 모집 순천시영상미디어센터 맞춤형 영화관람 지원

전라남도 순천시는 순천시영상미디어센터에서 영화를 통한 지역 공동체의 문화 접근성과 연대감을 높이기 위해 '2025년 공동체상영 지원사업' 참여 단체를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영화 감상 활동을 중심으로 시민들이 교류할 수 있도록 관람 공간과 영화 아카이브를 무상지원하며, 센터가 보유한 아카이브 내에서 상영작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참여 대상은 관내 15명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 및 모임이다. 관람 예정일 전월 20일까지 순천시영상미디어센터 누리집(www.scmedia.or.kr)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운영팀(061-753-3282)으로 문의하면 된다.

순천시영상미디어센터관계자는 "이번 공동체상영 사업이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는 동시에, 영화를 매개로 지역 사회 안에서 새로운 관계와 의미를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순천=배서준 기자



8일 케이워터운영관리(주) 직원들이 영산강문화관 일원에서 '공생의 길 프로젝트' 일환으로 지역 학생들과 영산강 생태 환경을 살펴보고 있다.

케이워터운영관리(주), 영산강 생물다양성 탐사 성황

케이워터운영관리(주)(대표이사 우달식)가 8일, 전라남도교육청과 나주교육지원청이 주최하고 자사가 주관한 '영산강 생물다양성 탐사水-UP' 프로그램을 영산강문화관 일대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

8일 케이워터운영관리(주)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공생의 길(물길·숲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프로젝트에서는 영산강 생태환경을 직접 체험하고 탐사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는 김대중 전라남도교육감, 변정빈 나주교육장, 우달식 케이워터운영

관리 대표이사를 비롯한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미래세대의 생태 감수성과 환경 의식 제고를 격려하고 의미를 더했다.

올해는 핵심 주제인 영산강 수질 개선 활동을 특화시킨 '수질 모니터링' 활동이 주목을 받았다. 학생들은 영산강 하천수를 직접 채수한 뒤 간이 측정 키트를 활용해 생화학적 산소요구량(BOD), 수소이온농도(pH), 수온 등을 측정하고 수서생물 관찰을 통한 생물학적 수질 평가도 함께 진행했다.

2가지 수질 평가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수질 오염과 생태계 건강성 간의 관계를 직접 확인하며 수질 보전의 중요성을 체득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진행된 생물 다양성 탐사 활동에서는 영산강 일대에 서식하는 다양한 생물을 직접 관찰하고 기록했다. 탐사 구간별 생물종 목록 작성, 생태 미션 수행, 생태 놀이 등의 프로그램이 더해져 학생들의 흥미를 높였고 생물 다양성 보전의 필요성을 자연스럽게 체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우달식 케이워터운영관리(주)대표이사는 "앞으로도 지역 교육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물 문화와 생태 보전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진용 기자



고령농가 금융사기 예방 교육 평동농협, 대응 요령 등 전달

광주광역시 평동농협은 지난 2일 본점에서 지역 주민과 농업인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전기통신 금융사기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최근 급증하는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등 금융사기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고령 조합원들의 소중한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평동농협은 점포 내에 대포통장 근절 및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안내문을 게시하고 금융감독원에서 제공한 동영상 자료를 활용해 실질적인 피해 사례와 대응 요령을 전달했다.

실제 사례 중심으로 진행되어 참석자들의 경각심을 높였으며 의심스러운 전화나 거래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대처법을 안내해 호응을 얻었다.

특히 평동농협은 조합원 중 65세 이상 고령농가 비율이 높아 고령층이 금융사기에 더욱 취약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정기적으로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최삼규 조합장은 "평동농협이 지역 대표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은 농업인과 지역주민의 무한신뢰였다"며 "앞으로도 우리 지역민과 농업인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 선도적인 금융사기 예방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조진용 기자

(주)호남청과, 강원도 동형성농협 상생 협력 강화 논의

출하 확대 선도 등

농산물 유통을 선도하는 (주)호남청과는 8일 강원도 동형성농협 김용식 조합장 및 임직원 5명을 본사로 초청해 경매 현장을 참관하고 출하 확대 및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동형성농협은 2024년 한 해 동안 오이, 호박, 옥수수 등 주요 품목을 중심으로 약 20여억원 규모의 농산물을 (주)호남청과에 출하하며 긴밀한 협력관계를 이어왔으며 올해에는 청일오이 등 품목 다변화를 통해 출하 물량을 더욱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동형성농협 김용식



조합장은 "농업인의 실익 증진과 수취가 격 향상을 위해 조합과 임직원이 헌신일체가 되어 노력하고 있다"며 "(주)호남청과도 농업인의 이익과 도매시장의 공적 기능 실현을 위해 지속적인 협력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주)호남청과 김용삼 대표이사는 "(주)호남청과는 공영도매시장의 책임 있는 도

매업인으로서, 급변하는 유통환경과 기후 변화 속에서도 출하 농가가 안심하고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통 경로를 개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동형성농협과 같은 우수 산지와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상생 기반의 유통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주)호남청과는 공영도매시장의 농산물 유통 주체로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며 최근에는 온라인 거래 플랫폼 확대, 산지 직거래 시스템 구축 등 유통 혁신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농업인의 실익 향상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출하자 중심의 유통 구조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조진용 기자